

# '3퇴'와 평안

제 334기 2018년 9월 15일

2018년 9월 10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1,441만 명**

## “당신이 오늘 얻은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

[명혜망] 2018년 8월, 띄약별이 불타듯 내리쬐는 스위스 루체른의 관광지에 중국 대륙 여행객이 몰려들었다. 파룬궁(파룬따파) 수련생 판 여사는 차에서 내리는 대륙 여행객 단체들을 향해 파룬궁이 중국에서 무고하게 박해받는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이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도록 도왔다. 또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할 때 중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한 독한 맹세를 취소함으로써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각종 겁난 속에서 목숨을 지키고 평안을 지키는 것이 '3퇴'의 근본 목적임을 알려주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돌 의자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옆에 있던 한 선생을 가리키며 판 여사에게 말했다. “이 분은 우리 당위서기인데, 당신이 그를 (당에서) 탈퇴시킬 수 있을까요?”

판 여사가 말했다. “그럼 좋아요. 당위서기는 내막을 많이 알고, 진상을 더 잘 아니까 앞장서서 (당에서) 탈퇴해야죠.” 그 당위서기는 깊은 감동을 받고 말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더 잘 알았습니다.” 판 여사가 말했다. “그럼 제가 가명을 지어 드릴 테니 '3퇴'해서 평안을 보전하시죠?” 서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당에서) 탈퇴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판 여사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이 서기가 이번에 관광하러 나왔다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잃었는지를 말해주시오.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판 여사가 말했다. “속담에 재산을 버려서 화를 면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돈을 잃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방금 탈당 성명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공산 사령(주: <공산주의 선언>) 앞



파룬궁 수련생 판 여사(오른쪽)가 중국 대륙 여행객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다.

머리에서 공산당을 유령이라고 칭했다)이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고 불도신이 관여합니다. 공산주의 사령은 인류를 훼손하는 것이지만, 불도신은 사람에게 자비롭고 좋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돈이지만, 오늘 얻은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은 값이 없지요!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않고 생명을 지켜 생사의 겁난을 피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판 여사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 앞 다투어 '3퇴'했다.

## ['3퇴'하여 복을 받다] 90도로 꺾인 허리가 순간적으로 펴지다

[지린 투고]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는데, 주변 사람 중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에는 나를 '병미인(病美人)'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어떤 의과대학도, 무경부대 병원도, 전문가 교수도, 검사기기도 원인을 찾지 못해 부모님을 근심으로 눈물짓게 했다. 2003년, 나는 파룬궁 수련의 길로 들어선 이후 일신의 병증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신기함을 목격하게 했다.

나는 작은 이발소를 차렸는데, 2006년경에 조선족 노부부가 나에게 와서 이발을 했다. 노부인은 이미 70세가 넘었고, 허리가 90도 정도로 굽어져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나는 머리를 깎으면서 파룬궁은 좋은 것이며,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라는 등의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할머니, 저하고 인연이 있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할머니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그럼 당원은 분명히 아니실 테고, 단원이거나 붉은 스카프를 매는 소선대원일 텐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나온 뒤로

매지 않아서 진작부터 쓸모가 없어졌어요. 관건은 애초에 중공의 당, 단, 대에 가입할 때 우리한테 독한 맹세를 시키면서 생명을 (사)당에게 바치게 한 거예요. 할머니는 벌써 청춘을 모두 바쳤는데, 생명을 자신에게 남겨야지 그것에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의 속죄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걸 보면, 대부분은 중공 사령과 관계가 있어요. 신체 속의 것들에 사령의 독소를 오랫동안 주입해서 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돈을 사기치고 색을 사기치고 이익을 빼돌리는데, 당신을 평안하게 한다고 사기 치는 게 어디 있나요!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잖아요. 정말 할머니가 잘 돼서 평안해지면 마음이 놓일 거예요.” 할머니가 내 말을 듣고 말했다. “나는 아직 당원이예요. 나는 여자 대장을 지냈어요!” 내가 말했다. “할머니, 신이 사람을 구할 때 마음을 보니까 가명으로 탈당해도 돼요. 제가 건강하고 평안해지라고 가명을 '평안'이라고 지었는데, 어떠세요?” 그녀는 동의했고, 내가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 아홉

글자를 정성껏 외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자 그러겠다고 했다.

1개월 후, 노부부가 다시 왔다. 문으로 들어설 때 나는 그 할머니를 알아봤는데, 그녀의 윗입술에 커다란 검은 사마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래 허리가 90도로 굽어있던 그녀는 훌쩍 커져 있었다. 어떻게 노인이 겨우 1개월 만에 허리가 꼳꼳해지고, 이렇게 클 수가 있는가?! 그녀는 앉자마자 지난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 후에 허리를 어떻게 해도 아파서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외우라고 한 말이 무엇이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파룬궁을 모두가 아니까 “파룬궁 하오(法輪功好)!”를 외쳐보자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렇게 한번 외치니 허리에서 “탁,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내 허리가 안 아팠어요! 그때 펴졌어요! 내 키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모두 키가 1미터 80이냐고 말해요.” 할머니는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말했다.

해외 메일주소 freeget.ip@gmail.com (제목을 비우지 말 것)로 메일을 보내면 10분 이내에 IP주소 몇 개를 얻을 수 있다. 봉쇄사이트를 돌파하고 망후이왕 www.minghui.org에 방문하면 더욱 많은 진상을 알 수 있다. 동타이왕 홈페이지에서 자유문, 무게 등 여러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나중에 올라가기가 더욱 편리하다.

## 조호르 주정부 청사 앞의 교공반



[명혜망] 2018년 9월 5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조호르바루시 이스칸다르에 있는 주정부 청사에 초청을 받았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공무원 부인 및 여공무원 협회 조호르주 분회가 주최한 ‘통계학 보급’ 강좌와 소학생, 중학생 두뇌개발 행사에서 연공을 가르쳤다. 참여한 파룬궁 수련생은 백여 명이였다. 연공을 배우는 사람 중에는 공무원 부인과 여공무원 협회 조호르 분회의 회원이 있었고, 조호르바루의 각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온 학생과 교사 대표도 있었다. 많은 사람은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꼈고, 심신에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풍광이 수려한 빌딩 앞에서 연공을 가르치던 파룬궁 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파룬궁은 성명쌍수의 공법인데, 리홍쯔 선생께서 1992년 중국에서 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영예롭게도 각계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지지 안전과 지지 서신이 3천여 건에 달합니다. 파룬궁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도덕성을 높이기 때문에 널리 환영받고 있습니다.”

## ‘텐안먼 분신자살’은 조작극



● 파룬궁 책 속에는 살생과 자살이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이나 자살, 분신자살을 절대 할 수 없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국가 테러주의 행위’라며 중공 당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중앙 텔레비전의 ‘분신자살’ 프로그램 화면은 이른바 분신했다는 여자 류춘링이 불에 타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물건으로 정수리를 맞아 쓰러졌음을 보여주었다. (위 그림)

① 팔 하나가 류춘링의 머리를 힘껏 내리친다.

② 무거운 물건이 류춘링의 머리를 때리고 튕겨 나온다.

③ 외투를 입은 남자가 류춘링을 때린 방향에서 1초 전에 힘껏 내리쳤던 자세로 서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01년 2월 4일자 1면 머리기사로 〈분신자살의 화염이 중국의 흑막을 비추다〉라는 조사보도 기사를 실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필립 판 기자가 직접 류춘링의 고향인 카이펑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웃들은 류춘링이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중공, 서슴없는 ‘금전 탈취’로 부체의 흡혈 본질을 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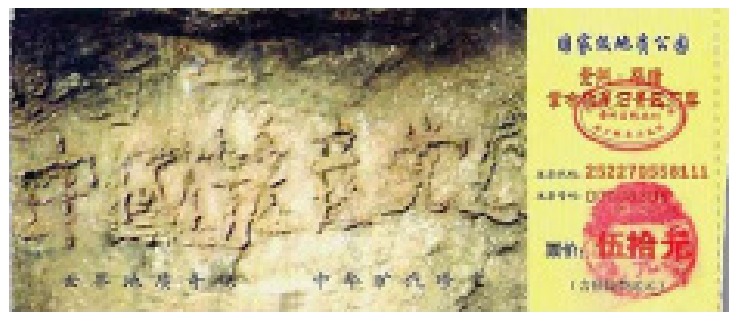
[명혜망] 최근 이어지는 소식은 모두 중공의 재정 수지가 적자여서 세금 징수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P2P 온라인 대출업체 파산에 대해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땅히 추궁해야하지 않는가? 원금을 잃은 투자자에게는 뭐라고 할 것인가?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는 전혀 없다. 반대로 새로운 세금 정책이 나왔는데, P2P를 경영하는 벤처기금에 대해 세율을 20%에서 35%로 올린다는 것이다. 벤처기금은 세금이 단번에 75% 증가했고, 자금유치난, 퇴출난으로 발버둥 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

바로 며칠 전, 중공 당국은 또 개인 수입 감세방안을 공개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자 비로소 깨달았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기업이 납부하던 양로, 의료 등 사회질 결산 비용을 세무부서가 통일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뜻인즉, 이전에는 기업이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를 결정해 탄력적으로 납부했지만, 현재는 세무국이 직접 강제적으로 거둔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기업의 생산비를 크게 증가시켜 원래부터 곤란 투성이었던 민영기업에게 설상가상이 되고, 결국 감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노동자들도 집으로 돌아가 취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어떤 전문가는 ‘국가를 위해 생육하자’는 토론을 펼치면서 사회 부양비 징수를 시작해 둘째를 낳지 않으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해 중공은 이미 체면을 집어던지고 직접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있다. 사회는 중공이 추태를 부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사실, 이전에는 중공이 민중의 재물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지만, 정권 수립 후부터는 일찌감치 모든 자금과 자재를 강제 점유했다. 중공은 1950년대 진반, 3반, 5반, 숙반을 시작으로 지주, 자본가, 기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업주, 장사꾼 등을 타도했고, 그들의 재산을 공사합영이라는 명분하에 통일적으로 점유했다.

2004년 〈9평 공산당〉 책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야 진정한 역사의 진상이 폭로되었다. 책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공산당은 폭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사용하여 인민의 재산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과 매스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인민의 정신적인 자유와 의지를 박탈하여 그것이 사회 권력을 절대로 통제하려는 목표를 달성시켰다. 이것으로 볼 때 중국 공산당이란 이 부체의 사회에 대한 엄밀한 통제는 동서고금에 능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공 부체가 시퍼런 얼굴로 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귀한 중국인이여, 당신은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알고 빨리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자. 당신에게는 곧 하나의 광명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